

TV

TV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SBS "돈 대신 명예 얻었다" 자평

1100억 써 손익분기점 미달... 이미지는 향상

'돈 대신 명예를 얻었다.'

12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의 국내 단독 중계를 모두 마친 SBS는 이번 중계를 통해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명예는 얻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큰 대회를 무리 없이 단독 중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구성원들의 자신감이 커졌다. 이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 따르면 SBS의 이번 남아공 월드컵 단독중계에 따른 지상파 TV 광고수입은 700억여 원에 이를 전망이다.

SBS는 한국팀이 16강에 진출하면서 국제축구연맹에 중계권료로 500만 달러(약 65억 원)를 추가 지급하는 등 계획보다 많은 제작비를 투입했다.

원으로, 프로그램 제작비 등 제반 비용을 합산하면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월드컵 단독 중계는 시청률 대박으로 이어졌고 덩달아 SBS의 브랜드 이미지도 향상됐다.

한국의 시청률이 50~60%를 기록했고 북한전과 일본전 등 한국전 외 다른 경기도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었다.

한편 월드컵 이후 SBS는 피고소인으로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 KBS와 MBC가 SBS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5월 고소했기 때문이다.

KBS와 MBC는 SBS가 2010~2016년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공동 구매기로 합의한 뒤 이 과정에서 얻은 입찰 정보를 이용해 비밀리에 IB스포츠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SBS는 지난 2월 반부당거래유리법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열리는 모든 올림픽과 월드컵의 국내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다.

'월드컵의 두 얼굴'

오늘 '시사기획 KBS 10'

KBS 1TV '시사기획 KBS 10'은 13일 오후 10시 '월드컵의 두 얼굴'을 방송한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한 달간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월드컵의 응원 열기와 이면에서 벌어진 국제축구연맹(FIFA)의 상업주의, 기업들의 치열한 마케팅 전쟁을 조명한다.

공식 후원업체가 아닌 기업들도 이른바 '매북 마케팅'으로 홍보전에 뛰어드는 데 국내에서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의 공식 후원사 광고와 함께 매북 마케팅을 펼친 기업의 광고를 나란히 볼 수 있었다.

제작진은 "FIFA는 남아공월드컵에서 중계권료와 기업후원금 등으로 4조 원대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FIFA의 상술과 방송사 간의 경쟁으로 중계권료는 20년 새 40배 이상 올랐다"고 지적한다.

제19회 광주 전남 직방비독대인. 배배를 자초한 무리수. 2회전 1국 총보(1~191). Includes a Go board diagram and text about the match.

EBS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titles.

EBS플러스1 and EBS플러스2 program schedule tabl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3일(음 6월 2일 甲子). Includes zodiac signs and fortune teller's prediction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I glad you could understand (English), 2. 朝ごはんもきちんと食べてください (Japanese), 3. 在老地方见面吧! (Chinese), 4. 背水之陣(배수지진) (Korean).